

연중 제 26 주일

제1독서 : 에제 18, 25-28

제2독서 : 필립 2, 1-11

복 음 : 마태 21, 28-32

이 주일의 화답송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돌아보소서.

# 숲 정 이

## 강론

### “신앙은 하느님께 향한 효도”

정 천 봉 신부/임실 성당

몇해전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평균 9일에 1건, 폭행은 1일에 3,2건씩 일어나고 있단다.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효자, 효녀 이야기는 먼 옛날 있었던 일처럼 생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옛그제가 추석명절이었다. 이런 절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부모님이었을 것이다. 효도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향한 것이기에 그러고 보면 신앙 역시 효도임이 분명하다. 신앙도 결국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향한 효도인것이다. 그런데 아주 못되게 흐르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이나 하느님께 드리는 효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실 하느님께는 훨씬 높아야 할 효도의 수치는 우리에게 신앙의 효도를 새삼스럽게 되돌아 보게 한다.

오늘 복음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효자인가? 첫째인가? 아니라면 효자는 있는가? 첫째가 좀 낫지만 진짜 효자는 못된다. 바로 진정한 효자의 성공 사례를 오늘 미사의 2독서에서 소개하고 있다.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라는 표현으로 효자인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길이다”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효도의 길을 새삼 생각해 본다. 신앙은 생활이다. 그저 대답만 잘하는,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치며 사는 생활이다. 예수님이 보이신 효도의 모범은 첫째 아들도, 물론 둘째 아들도 아닌 두 단계를 뛰어넘는 좋은 욕심(?)을 내라고, 그래서 진짜 효자, 효녀가 되라고 나를 깨우쳐 준다.

신앙인치고 불효자는 없다. 사실 아버지 하느님께 향한 효도는 당연히 부모님께도 이어지는 것이기에 두 효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부모님께 불효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자.

## 소리

### 관심과 실천

우리는 1년 중에 ‘벌써’라는 말을 여러 번 쓴다. 9월도 그 중에 하나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한 바람이 불때 벌써 9월이구나라는 말을 한다.

5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던가. 군사정권 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복역한 세계적인 인권운동가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인권만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김영삼 정권은 물론 군사정권때 보다 더 많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입만 열면 교육개혁을 부르짖지만 경제와 경쟁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현장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에는 사학재단을 위하여 교육관계법마저 통과하였다. 한마디로 정권은 의구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깨어 있다. 대표적인 일제 잔재이자 냉전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사제들은 삭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분단으로 고착된 거짓 평화를 몰아내고 자주와 동포애에 기반한 참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관계법 재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100만인 서명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관심과 실천이 참된 평화와 참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인]

### 숲정이 산책



“둥근 달 속의 부모님 모습”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 “희년 - 자유의 선포”

대희년을 몇 개월 앞두고 맞이하는 한가위는 희년 정신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완벽한 시간이다. 게다가 교황성하의 성부의 해 기도는 우리 한가위의 정서와 잘 맞는다. “...좋은신 아버지, 저희가 희년을 지내게 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은총의 때인 이 희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메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 성년에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저희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찬가와 영가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형제들과 함께 빵을 쪼개어 나누는 친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소서...”

참으로 한가위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형제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 시간, 감사를 위한 시간이다. 우리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온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낌없이 주셨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식구들에게, 그리고 다른 하느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곤궁에 처해 있거나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진다.

이 한가위에는 바오로 사도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묵상해 보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사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3, 15-17)

참으로 한가위에 적절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올 한가위 잔치에는 지나간 사진첩들을 보며 가족에게 은혜로웠던 모든 사람과 장소들,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측면을 강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가족들 사이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탕감해 줌으로써 부채 탕감이라는 희년 관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볼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 희년 경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과 정의, 화해의 실천에 우리를 투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과 정의라는 복음 메시지에 따라 살겠다는 자신의 서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이 함께 마련한다면 희년이 성큼 우리 안에 다가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느님, 저희를 향한 아낌없는 베푸심에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희년 정신안에서 새로운 천년기를 시작하려는 이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화이든 - 더욱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아멘.”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90일 남았습니다.

**SK직영 금강주유소**  
 보일러등유 } 배달 \*정량 정품 판매  
 실 내 등유 } 판매 \*면세유 취급  
 자유형경유 \*신용카드 환영

송 절 규  
 김 선 지(아네스)  
 병방울 북지매장→고래동 오거리 방향 우측 100m  
 ☎ (0653) 841-5140

**금강치과의원**  
 교통좋은 역전으로 이전개원  
 12년간의 경험과 신장비로 모십니다  
 원장(치의학 박사) 진 국 범  
 부진 성 구(안드레아)  
 익산역→원대방향 30m인켈 2층  
 역전 주차장 이용바람  
 ☎ (0653) 853-6633

**토탈 패션**  
**I M A+**  
 영계주얼, 보세외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대한상사**  
 주택증개축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샷수 도배  
 김 익 화(요셉)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62-39  
 ☎ (0652)252-4874, 011-277-6522  
 호 출: 012-684-2658  
 핸드폰: 011-680-4874



#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 차림 김 린주  
 보좌신부 252-0383 수 너 원 272-5304 보좌신부 김 차림 김 린주  
 F A X 271-1937 유 치 원 252-0384 사목회장 이 차림 김 린주

- ◎ 축! 영명: 박찬길(미카엘)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축하식 - 오늘 교중미사 후
1. 금주 모임: ① 예언자의 모후 Co. 회의 - 오늘 후 2시  
 ② 구역(반)장 회의 - 30일(목) 전 11시  
 ③ 공동참회예절 - 30일(목) 후 7시 30분  
 ④ 병자 봉성체 - 10월 1일(금) 후 2시
  2. 사목회 삼임위원회: 다음 주로 연기되었음
  3. 예비신자 특강: 29일(목) 후 8시
  4. 반찬시사회 회비 납부: 오늘 미사 전, 후
  5. 금주 전례: 해설 - 송귀현, 독서 - 이종권, 김연자  
 봉헌 - 팔복 3반
  6. 차주 전례: 해설 - 오효정, 독서 - 이경문, 박옥남  
 봉헌 - 팔복 4반
  7. 금주 청소: 10월 2일(토) 후 2시, 진복회, 성모 마리아 Pr.
  8. 차주 청소: 9일(토) 후 2시, 중고 학생회, 착한 의견의 어머니 Pr.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김 진 화  
 F A X 212-3722 수 너 원 212-3233 사목회장 최 승 호

- ◎ 대의년을 새가족과 함께: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구역(반)장회의 - 공식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2. 차주 모임: 우리들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3. 유아 세례: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체강복: 28일(화) 저녁미사 후
  5. 축! 혼배: 다음주일 12시 신랑 - 김현(토마스), 신부 - 안영숙
  6. 청소 안내: 금주 - 황궁금전 Pr., 차주 - 중재자의 모후 Pr.
  7. 금주 전례: 해설 - 최병식, 독서 - 전동운, 정경희  
 봉헌 - 권일용, 이봉순
  8. 차주 전례: 해설 - 마옥현, 독서 - 유준원, 박인화  
 봉헌 - 최완철, 유순옥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91-2018 수 너 원 291-3196 사목회장 강 영 만

1. 금주 모임: ① 승리의 여왕, 셋별 꾸리아 - 후 8시  
 ② 애령회 - 공식미사 후  
 ③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① 구역(반)장 월례회 - 후 8시  
 ② 아가페회 - 첫째주 금요일 전 11시
3. 본당 성지순례 행사: 10월 10일(주일)  
 \* 각 구역(반)장님께 신청 바랍니다
4. 감사 헌금: 예비신자 황명선 3만, 최재식(바로로) 5만
5. 차주 청소: 남사신, 태평
6. 금주 전례: 특전미사 해설 - 김옥화, 독서 - 최경호, 김옥분  
 공식미사 해설 - 윤천수, 독서 - 박종선, 장은숙  
 제물봉헌 - 배기승 부부
7. 차주 전례: 특전미사 해설 - 최숙경, 독서 - 최홍식, 이순옥  
 공식미사 해설 - 김세연, 독서 - 이재구, 김순주  
 제물봉헌 - 서승환 부부

**송천1동** 주임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 이 진 호

- ◎ 오늘은 본당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요셉회 - 26일(주일) 공식미사 후
  2. 축! 영세: 10월 1일 포교사업의 수호자 예수아기의 성녀 테레사 동정 대축일밤 8시에 미사 및 영세식이 있었습니다  
 \* 9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3. 10월 1일 영세자의 특별교리가 9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매일 후 8시에 있습니다
  4.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일미사가 없었습니다
  5. 10월 14일부터 교리공부를 시작할 2000년 대의년 부활영세반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교식 - 10월 14일, 예비신자 교리 - 21일부터
  6. 교무금의 신림과 납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오 현택  
 수 너 원 291-0833 수녀원(의산동)291-1520 사목회장 이 재갑

1. 오늘 모임: 꾸리아 월례회 - 저녁미사 후
2. 구역(반)장 모임: 10월 2일(토) 후 8시
3. 차주 모임: 안나회, 성모회, 아가페회
4. 미사시간 변경: 목요일 - 전 10시→후 7시 30분  
 금요일 - 후 7시 30분→전 10시  
 토요일 - 어린이 3시 30분→4시  
 토요일 - 중·고등부 5시→7시  
 토요일 - 7시미사 →특전미사
5. 매월 첫 목요일은 저녁미사 후에 성체강복(성시간)이 있습니다
6. 유아세례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7. 오늘은 성전신축 2차헌금이 있습니다
8. 금주 전례: 해설 - 강희순, 저녁 - 김미란  
 독서 - 박경원, 정준근, 소미옥, 봉헌 - 최병윤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김윤오, 저녁 - 이미란  
 독서 - 이종준, 이금민, 오영숙, 제물 - 강창희 부부
10. 성당 청소: 10월 2일(토) 가난한이의 모후, 복되신 동정녀 Pr.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 기 호  
 보좌신부 254-8561 수 너 원 254-1142 보좌신부 황 유 진 김 진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 유 진 신

1.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제대회: 28일 전 10시
3. 전주교구 주보 만화책 '오십이'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1권 - 8,000원
4. 가정방문 일정: 24구역 1반 - 29일 후 2시  
 24구역 2반 - 30일 후 2시  
 \* 구역(반)장님께서는 협조 바랍니다
5. 연중 봉헌금(교무금)을 월별로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6. 다음주일은 군인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7. 금주 본당청소: 11구역 2일 전 10시
8. 금주 전례: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10구역
9. 차주 전례: 해설 - 손춘식, 독서, 봉헌 - 11구역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병 수  
 보좌신부 252-1606 수 너 원 252-9567 보좌신부 정 인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 인

- ◎ 본당의 날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금주 모임: M.E모임, 요한회 -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성모회, 푸른숲, 하상회 - 공식미사 후
  3. 구역분과 월례회: 30일(목) 전 10시, 강당
  4. 1998년 영세자 모임: 10월 5일(화) 후 7시 30분 \* 대부 대모님들은 영세자들을 찾아 주시고, 저녁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초등부 어린이양 잔치: 10월 3일(주일) 전 9시, 윤호관
  6. 울뜨레야 아유회: 10월 3일(주일) 전 10시 출발
  7. 오늘 서학동 성당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8. 다음주 군인 주일: 2차 헌금
  9. 수녀원건물 구입 헌금: 정진술(15만원) 계 44,546,500원
  10. 다음주 본당청소: 2구역 11반
  11. 미사안내: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12. 금주 전례: 해설 - 김문숙(보나), 독서 - 김종윤, 최인자
  13. 차주 전례: 해설 - 안남근(마카엘), 독서 - 김성준, 이정현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마태 21, 31b)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